

나경원 당대표 선거 불출마...“용감하게 내려놓겠다”

“솔로몬 재판 진짜 엄마 심정으로
전당대회에서 역할 할 공간 없다”
윤심 못 얻고 하자...정치인생 위기

25일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3·8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당의 분열과 혼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막고, 화합과 단결로 돌아올 수 있다면, 저는 용감하게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 출마가 분열의 프레임으로 작동하고 있고, 극도로 혼란스럽고 국민에게 정말 안 좋은 모습으로 비춰질 부분이 있기에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솔로몬 재판의 진짜 엄마 심정으로 그만두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고대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한 아이를 두고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가 다투자 ‘아이를 반으로 잘라 가지라’고 한 재판을 말한다. 진짜 엄마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 포기했고, 솔로몬 왕은 이렇게 진짜 엄마를 가려냈다. 나 전 의원은 “이제 선당후사(先黨後私), 인종유화(忍中有和) 정신으로 국민 모두와 당원 동지들이 이루고자 하는 꿈과 비전을 찾아, 새로운 미래와 연대의 긴 여정을 떠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저의 물러남이 우리 모두의 앞날을 비출 수만 있다면, 그 또한 나아감이라 생각한다”며 “역사를 믿고 국민을 믿는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저의 진심, 진정성은 어디서든 변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나 전 의원은 “국민의힘이 더 잘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영원한 당원’의 사명을 다하겠다”며 “정말 어렵게 이뤄낸 정권교체다. 민생을 되찾고 법치를 회복하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이 소중한 기회를 결코 헛되이 흘려보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당내 친윤(친윤석열)계 초선 의원 50명이 성명을 내 자신을 비판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초선 의원들의 처지는 이해한다”고만 답했다. 공천을 의식한 집단행동이라고 예들러 비판한 것이다. 그러면서 “포용과 존중을 절대 포기하지 말라. 질서정연한 무기력함보다는, 무질서한 생명력이 필요하다”며 “건강한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의 진정한 성공을 기원하겠다”고 했다. 나 전 의원은 “어떤 후보라든지 다른 세력의 요구나 압박에 의해 (불출마를) 결정할 게 아니다”며 다른 후보를 지지하거나 연대할 것이라는 질문에는 “앞으로 전당대회에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할 공간은 없다”고 답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 뒤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지지 표심 어디로...국힘 당권 구도 지각변동

김기현·안철수 사실상 양자구도
“범윤 표심 결집” “수도권 대표론”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25일 당 대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당권 구도에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김기현·안철수 의원 간 양자 구도도 재편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나 전 의원의 ‘이탈’ 이후 나 전 의원을 지지하던 표심이 어떤 후보로 갈지가 최대 관심사로 부상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특정 후보 지지와는 선을 그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전당대회에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할 공간은 없다”고 일축했다. ‘윤심’ (尹心·윤석열 대통령 의중)을 등에 업은 김 의원 측은 나 전 의원 쪽을 지지했던 ‘범윤’ (범

윤석열)계 표심을 포함한 당의 전통적 지지층이 안 의원이 아닌 자신들에게 향할 것이라고 확인하는 기류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우리 당 지지층은 결코 안 의원을 찍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당 지지층에서 안 의원이 50% 가까이 나오는 여론 조사는 바다 민심과 전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반면 안 의원 측은 총선 승리를 목표로 ‘수도권 대표론’을 지지했던 당심을 끌어올 수 있다고 자신하면서 이른바 ‘김장(김기현·장제원)연대’도 다시 끄집어내 견제구를 던졌다. 안 의원 측 관계자는 “결국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전략적인 표심이 도드라지고 솔림 현상이 있을 것”이라며 “대구·부산에서도 ‘장제원 의원이 배후에서 조종한다, 당을 휘젓고 다닌다’며 바다 민심이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엠브레인퍼블릭이 YTN 의뢰로 설 연휴 기간인 지난 22~23일 전국 성인 200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 784명은 김 의원 (25.4%), 안 의원 (22.3%), 나 전 의원 (16.9%) 등의 순으로 지지율을 보였다. 이번 전당대회 도입된 결선 투표를 가정한 양자 대결에서 국민의힘 지지층 중 49.8%는 안 의원을, 39.4%는 김 의원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이 여론조사는 유선(19.5%)·무선(80.5%)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응답률 7.7%)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19%포인트(국민의힘 지지층 95% 신뢰수준, ±3.5%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내달 2~3일 후보 등록까지 김기현, 안철수 의원의 다른 당권주자들의 거취도 변수로 꼽힌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세일즈 외교 성과 강조한 윤 대통령 “국무위원들 영업사원 각오로 뛰어달라”

“제2 중동 붐 철저히 준비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아랍에미리트(UAE) 국민 방문과 관련해 “관계 부처는 한-UAE 투자 협력 플랫폼 구축 등 국부펀드 투자에 관련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저도 빠른 시일 내 수출전략회의와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이 사안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300억 달러는) UAE가 어느 나라보다도 맺지 않은 압도적이고 전례 없는 규모라고도 평가했다. 이런 이례적인 순방 성과가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 부처가 총력을 쏟아야 하는데 방점을 찍었다. 윤 대통령은 비공개회의에서도 한-UAE 투자 협력 플랫폼의 과감한 개방을 강조하며 “보다 많은 부처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투자유치 외에도 약 50건의 양해각서(MOU) 체결, ‘바라카 원전’ 기반의 원전 협력 강화 등 다른 순방 성과를 나열하며 “양국 간 두터운 신뢰 위에서 제2 중동 붐을 일으킬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순방기간 ‘1호 영업사원’임을 자임한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도 기업의 해외 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저부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 선발이 될수록 뛰고 또 뛰겠다”며 “국무위원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이 나라의 영업사원이라는 각오로 뛰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순방기간 만난) 글로벌 CEO들에게 제 사무실이 언제나 열려 있으니 한국을 방문할 때 편하게 찾아달라고 했고 애로 사항도 대통령에게 기탄 없이 얘기해 달라고 했다”며 “국무위원들도 외국 기업의 애로 사항을 좀 많이 경청해달라”고도 언급했다. 특히 “우리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혁신 허브로 만들자”며 “규제, 노동 등 모든 시스템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우리 제도를 정합시키지 않으면 (외국에서) 투자도 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기업이 국제시장에서 경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성 없는 경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이 혼자 싸우도록 만들 수가 없다”며 정부와 민간이 ‘한 몸’으로 뛰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회 정개특위,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제정 논의 착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5일 국회선진화소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한 규칙 제정 논의에 착수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21년 4월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 정보로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됐지만,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을 담은 규칙은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전제수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해충돌 방지법과 국회법

(개정안)이 이미 통과됐음에도 국회 규칙을 제정하지 못해 국회법 시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시급하게 국회 규칙을 정비 법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소위는 향후 규칙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8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바른자세, 꾸준한 운동, 세심한 관리로
튼튼한 '인생' 튼튼하게 '즐기세요'

척추 무릎 어깨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전체 리모델링, 칼라강판 지붕공사,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농막, 옥상스틸방수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 북구 자미로45(신안동) | 공장: 광주 서구 서항2길3(서항동)